

2018년 통권 제 2호

2018年度 歷史紀行班 江華島踏查



亞洲大學校 史學科 歷史紀行班

목차

- i. 답사 일정
- ii. 우리가 가는 길
- iii. 강화도 지역개관
- iv. 강화 역사박물관

- 시대별 분류

<선사시대>

- 1. 강화지석묘

<고려시대>

- 2. 전등사
- 3. 정족산 사고
- 4. 삼랑성
- 5. 고려궁지

<조선시대>

- 6. 갑곶돈대
- 7. 광성보
- 8. 덕진진
- 9. 초지진

<읽기자료>

- 10. 병인양요
- 11. 신미양요
- 12. 성공회 강화성당

- 일정별 분류

강화지석묘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전등사

고려궁지

답사 일정

<첫째 날>

강화 역사박물관 → 강화지석묘 → 갑곶돈대 →
광성보 → 덕진진 → 초지진 → 숙소 도착

<둘째 날>

숙소 출발 → 전등사 → 고려궁지 → 성공회 강화
성당 → 아주대학교 도착

우리가 가는 길



TP.1 강화역사박물관	5 덕진진
2 강화지석묘	6 초지진
3 갑곶돈대	7 전등사
4 광성보	8,9 고려궁지, 성공회강화성당

강화도 지역개관

18 손지호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으로 경기만 북쪽의 한강 하구에 있으며, 동쪽의 염하(鹽河)¹⁾를 사이에 두고 경기도 김포시와 접해 있다. 강화도는 원래 김포반도의 일부였으나 오랜 침식작용으로 평탄화된 뒤 침강운동으로 육지에서 구릉성 섬으로 떨어져 나왔다.

강화는 '혈구군' 또는 '갑비고차'라고 했으며 고구려에 속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다시 신라 제35대



▲ 강화도 지도

경덕왕이 이름을 바꿔 해구군으로 개칭하였으며, '강화'라는 이름은 고려 태조(서기 940)에 이르러 강화현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고종 때(서기 1232) 강화군으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강화는 강과 관련된 지명으로,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의 '여러 강을 끼고 있는 아랫고을'이라고 하여 강하(江下)라고 부르다가 '강 아래의 아름다운 고을'이라는 뜻으로 강화(江華)라고 고쳐 부른 듯하다.

예부터 강화도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 조선의 수도인 한양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이었다. 그래서 선사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역사가 배어 있는 역사적 산실이라 불린다. 막강한 지배층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인돌부터 시조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참성단은 선사 시대부터 강화도의 역사가 이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쪽의 요새 강화도는 삼국시대 때부터 주목받아왔다.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으로 해전과 육전의 요충지였고 중국과 해상·육상 통로가 없었던 신라 역시 자주 이곳을 넘봤다. 고려시대를 맞아 또 다른 역사적 국면이 전개된다. 몽골의 잦은 침략을 피해 고종은 서울에서 가까운 섬 강화로 천도(1232)를 감행하였고 줄기찬 저항으로 39년간의 장기전을 치른다. 그 아픈 시련을 불력(佛力)²⁾에 의지해 팔만대장경을 주조하였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도)과 경기도 김포시 사이에 있는 남북 방향의 좁은 해협(海峽)이다. 마치 강(江)과 같다 하여 염하(鹽河)라고 부르며 강화해협 또는 김포강화해협이라고도 한다.

민족혼으로 승화시킨 것은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효종은 나라를 잃고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있던 한을 씻고자 북벌계획을 추진하면서 이곳에 진(鎭)과 보(堡)를 설치했다. 군사력 강화는 이후 숙종 때까지 추진되어 5진(鎭), 7보(堡), 53돈대(墩臺), 9포대(砲臺)가 축조·설치되었다. 이 중 현재 복원되었거나 상태가 양호한 전적지는 스물여덟 곳이다. 조선 말기에도 강화도의 수난은 계속됐다. 1866년 프랑스가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강화도에 침범한 병인양요가 발발했다. 양헌수 장군의 군대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하였으나, 프랑스군이 후퇴하면서 외규장각 도서를 모두 약탈해갔다. 또한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명분으로 1871년 미국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를 침략한 신미양요를 겪고 1875년에는 운요호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강화도에서 발생한 것은 강화도가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강·예성강·임진강의 3대 하천 어귀에 있으면서 서울의 관문이었던 강화는 이러한 수난에 대항하면서 상처투성이의 땅이 되었다. 한국사의 축소판인 것이다. 이 지역에 형성된 문화재 역시 저항 속에서 일구고 승화시킨 것이어서 귀하고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강화도 역사박물관

18 김세희

강화 역사박물관은 인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4년에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사업으로 착공되어 1988년에 준공하고 9월 14일에 개관하였다. 홍이포 1문과 소포 2문 등 대포 3문을 비롯하여 철재 종류가 38종, 석재 종류가 69종, 목재와 지기 종류가 49종, 기타 문구 종류와 의상 등 총 169점의 유물들이 보존 전시되어 있다.

이 박물관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 137호 강화 고인돌 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박물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자면 상설전시실과 전통한옥실로 구성되어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강화지역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실물, 디오라마, 복제품, 영상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사용하여 전시하고 있다. 로비에는 강화 동종과 선두포축언시말비가 전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획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강화 동종은 조선 숙종 37년 강화유수 윤지완이 주조한 것을 그 후 유수 민지원이 정족산성에서 다시 주조한 동종이다. 선두포축언시말비는 강화 동종 옆에 조선시대 선두포 제방공사(1706년)과정을 기록하여 세운 비석이다.

2층 상설전시실은 고인들의 땅 강화, 신나는 청동기시대 탐험, 강화의 열린 바닷길 이야기로 전시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1층 상설전시실은 고려 강화, 조선 강화, 근대 강화, 삶과 민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 한옥 실에서는 안방과 사랑방, 누마루의 구조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한옥이 실물크기로 전시되어 있다.



▲ 강화도 역사박물관 전경



▲ 강화 동종



▲ 선두포축언시말비

강화지석묘

18 김주영

지석묘에 대한 소개

지석묘는 다른 말로 고인돌이라고 불리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 지석묘를 통해 당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이 주를 이루며, 이외에 많은 종류의 고인돌들이 있다. 강화도뿐만 아니라 고창, 화순에도 고인돌들이 대거 존재한다.

강화지석묘의 위치와 구조

사적 제 137호이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에 강화지석묘가 위치하고 있다. 강화지석묘는 또 다른 말로 강화고인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고인돌은 덮개돌의 크기가 길이 7.1m, 높이 2.6m, 너비 5.5m에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강화지석묘

강화지석묘(강화고인돌)의 특징

강화지석묘는 고려산, 별립산 등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여러 산지 중에서도 고려산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산지에 분포된 이유는 지금의 평지인 곳이 당시에는 바닷가나 갯벌로 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세 번째 특징은 강화도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 중에서 탁자식 고인돌의 비중이 가장 높다. 탁자식 고인돌은 북한 지역에 많이 위치해있지만 그 북한 지역보다도 강화도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고인돌 중 성혈(星穴)³⁾이 만들어진 고인돌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성혈은 개석식⁴⁾에서 발견이 되며, 성혈이 만들어진 고인돌은 3기 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강화 고인돌에서 잘 발견할 수 없다.

강화지석묘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

고인돌이라는 문화유산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강화지석묘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계급이 분화되었다. 그런 지배자들이 사후 묻혔던 곳이 고인돌이라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강화지석묘에도 지배자가 묻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강화지석묘는 우리에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추론하게 해준다. 강화도라는 섬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업 생활을 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 성혈은 일반적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와 별자리 등을 상징한다. 성혈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김경상의 한반도 삼한시대를 가다(294)]

4) 고임돌(支石)이 없이 지하에 있는 매장시설 위를 뚜껑처럼 덮개돌(上石)이 직접 덮고 있는 형태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고학사전]

갑곶돈대

18 문성은



▲ 강화 갑곶돈대의 모습

오늘날 사적 제306호로 지정된 갑곶돈대는 고려 고종 19년(1232)부터 원종 11년(1270)까지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후 조선 인조 22년(1644)에 설치된 제물진(갑곶진)에 소속된 돈대로 숙종 5년(1679)에 축조되었으며 갑곶돈대는 8문의 대포를 설치하였다.

갑곶은 ‘삼국사기’ 37권에 강화가 ‘갑비고차’로 불렸던 것과, 1231년(고려 고종 18)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이 건너지 못하고 발만 구르다 되돌아간 곳이다. 당시 몽골군이 “우리 군사들의 갑옷만 벗어 메워도 물길을 건널 수 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여 그 이름을 갑옷 갑(甲), 꿰 갯(串) 자를 넣어 지었다고 전한다. 또한 ‘돈대’는 외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에 흩이나 돌로 크고 작은 방어시설물을 말한다. 고종 3년(1866) 9월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극동 함대가 6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곳으로 상륙하여 강화성과 문수산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10월에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은 양현수 장군의 부대에 패하여 돌아났다. 1876년에는 일본의 전권대신 구로다 기요타카가 이곳으로 상륙하여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신헌(申櫨)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77년에 옛터에 새로이 옛 모습을 되살려 보수, 복원이 이루어졌다.

지금 돈대 내에는 조선시대의 대포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으며 이는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왜적의 선박을 포격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는 강화비석군과 400년 된 갑곶리 탕자나무가 있으며 강화도를 포위하고 있던 몽골과의 협상을 했던 이섭정(利涉亭)이 있다. ‘이로울 이(利), 물 건널 섭(涉)’자를 써서 이섭정이라 지었는데 이름 그대로 여기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

강화에는 해안가 요충지에 자리 잡은 방어요새 ‘돈대’가 모두 54개 있는데 그중 갑곶돈대는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축조되었다. 강화대교를 건너면 바로 좌측에 보이는 갑곶돈은 한강의 길목 강화해협을 지키던 중요한 요새고 이곳에 보루를 만들어 대포 8문을 배치한 곳이 갑곶돈대다. 조선후기 유학자 김창협(1734~1808)의 시에 ‘정축년 한 맺힘이 터전에 싸여있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1637년(정축년)에 충신과 열사들이 청나라와 싸우다 많이 희생된 곳이기도 한다.



▲ 갑곶돈대 안에 있는 대포의 모습

광성보

18 정은비

광성보는 사적 제227호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33에 위치해있다. 강화해협을 지키는 강화 12진보 중 하나이며,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한 후, 1233년부터 1270년까지 돌과 흙을 섞어 해협을 따라 길게 쌓은 성이다. 조선 광해군 때부터 헐어진 곳을 다시 고치기 시작했으며, 이후 효종 9년에 강화유수 서원이 광성보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숙종 때에 이르러 완벽한 석성으로 축조되었다. 광성보는 1871년 신미양요 때 제일 치열했던 격전지였다. 1871년 4월 24일 미국의 로저스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함대를 이끌고 1,230명의 병력으로 침공하였을 때, 상륙부대가 초지진, 덕진진을 점령한 후 광성보에 이르러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조선군 지휘관 어재연 장군과 전용사가 열세한 무기로 용감하게 싸웠는데, 포탄이 떨어지면 칼과 창으로 싸우고 칼과 창이 부러지면 돌과 맨주먹으로 싸워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았고, 몇 명의 중상자를 제외하곤 장렬히 순국하였다고 한다. 이 때 파괴된 문루와 돈대를 1976년에 복원하고, 당시 전사한 병사들의 묘와 어재연 장군의 전적비도 함께 보수하였다고 한다. 이 때 세운 강화 전적지 정화 기념비가 용두돈대에 서있다. 매년 음력 4월 24일에는 어재연 장군과 무명용사들에 대한 광성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 광성보의 입구 안해루

용두돈대

돈대란, 경사면을 절토하거나 성토하여 얻어진 계단 모양의 평탄지를 옹벽으로 받친 부분을 말한다. 용두돈대는 광성보에 소속되어 있는 강화 53돈대 중 하나로 해협을 따라 용머리처럼 돌출된 자연 암반을 이용해 축조한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천연의 요새로 중시되었으며 숙종 때 축조되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치르면서 성벽이 많이 손실되었지만 1977년 강화 중요 국방유적 복원정화사업으로 다시 복원되었다. 당시 돈대 안에 강화전적지정화기념비를 세웠는데, 앞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가 있고, 뒷면에는 이은상이 짓고 김충현이 글씨를 쓴 비문이 새겨져 있다. 돈대 앞을 흐르는 염하(강화와 김포의 경계를 이루는 수역)는 손돌풍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손돌목이다. 염하 건너편 덕포진 언덕 위에는 손돌풍 전설의 주인공 손돌의 묘가 있다.



▲ 광성보 용두돈대

광성돈대

광성보에 소속된 3개의 돈대 중 하나이며, 1679년(조선 숙종 5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의 승군 8000명과 어영군 4300명이 40여 일만에 완공하였다고 전해진다. 신미양요 때 파괴되었다가 1977년에 포좌 4개소와 포 3문을 복원 설치하였다. 돈대에 속한 홍이포는 포구에서 화약과 포탄을 장전한 다음 포 뒤쪽 구멍에서 점화해 사격하는 사정거리 700m의 포구장전식 화포이다. 포탄을 날아가기는 하지만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위력은 약하다.

쌍충비각

쌍충비각은 광성보 안에 있는 비각으로 신미양요 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어재연 장군과 그의 아우 어재순의 전적을 기리는 전적비가 있다. 강화군 향토유적 제 10호로 지정되었고, 해마다 음력 4월 24일이면 어씨 형제의 충절을 기리는 제를 올린다.



▲ 광성보 쌍충비각



▲ 쌍충비각의 편액

신미순의총

신미순의총은 쌍충비각 맞은편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고종 8년인 1871년 광성진에서 벌어진 미군과에 전투에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무덤이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묘이고, 시신은 7기의 분묘로 나누어 순절을 기리고 있다. 대부분 호랑이를 잡던 포수 출신들로 용맹함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 광성보 신미순의총

덕진진

18 최시영



▲ 덕진진

덕진진은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에 위치해있고, 1971년 사적 제 226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시대부터 강화도 해안을 지킨 외성의 요충지이다. 병자호란 뒤 강화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성·외성·돈대·진보 등의 12진보를 만들었는데 그 중의 하나로, 효종 7년(1666)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해군주둔지(수영)에 속해 있

던 덕진진을 덕포로 옮겨졌다. 1679년(숙종 5년) 강화도에 내성과 외성을 축성하고 해안에 50개에 달하는 돈대를 설치했고, 이를 관할하는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등 13개의 진과 보를 설치했다. 이중 덕진진은 용두돈대와 덕진돈대를 거느리고 덕진포대와 남장포대를 관할했고, 강화해협에서 가장 강력한 포대로 알려져 있었으며 강화 12진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키고 있었다.

덕진진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격전지로 익숙하다. 병인양요 때는 양현수의 부대가 밤에 덕진진을 거쳐서 정족산성에 들어가 프랑스군을 격파했다. 신미양요 때는 초지진의 함락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함락되었다. 이 때 성첩과 문루가 모두 파괴되고 문루지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 중일 때 반공과 자주국방에 대해 부각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대몽항쟁과 두 번의 양요를 겪은 곳인 강화도를 보존하고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 1976년부터 보수정화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중 제2공구인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관련된 전적지에 포함되어 돈대, 포대, 포 등이 복구되었다.

덕진진 경고비

덕진진에는 비석이 하나 존재하는데 덕진진 경고비이다. 덕진진에 포함된 덕진돈대에 위치하며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해문방수타국선신물과’(海門防守他國船愼勿過)’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는 ‘바다 문을 막고 지키고 있으니 다른 나라 배는 지나지 말라’는 의미로서 어떠한 외국 선박도 함부로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쇄국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덕진진 경고비

초지진

18 이지원

강화도에서 마주한 우리 근대의 역사 외세 침입과 함께 일제의 한일합방까지 그 중심이자 시작의 문을 연 곳이 강화도, 이를 세분화하면 초지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은 아주 작은 성곽에 불과할 수 있지만 강화도에서는 그래도 강력한 조선 군사들이 배치된 곳이었던 진(鎭)이었다. 초지진은 신미양요와 운요호사건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다. 한강을 통해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강화



▲ 초지진 전경

화의 초지진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지진은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전쟁과 역사 이야기가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강화성을 점령한 프랑스 군대를 정족산성에서 물리친 양현수 부대가 도하했던 곳이다. 1871년 신미양요 때는 낡은 화승총으로 당시 최첨단의 레밍턴 소총과 박격포로 무장한 미군들과의 48시간의 격전을 벌였던 곳이다. 사실 말이 격전이진 제대로 된 전투하지 못한 채 한방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이 전쟁을 기록한 미 해병 장교의 회고록이 조선군의 용맹함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겼다. “조선군은 근대적인 총기 한 자루도 보유하지 못한 채 낡은 무기를 가지고 근대적인 화기로 무장 미군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조선군은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아마도 우리는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 그토록 장하게 싸우다가 죽은 국민을 다시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1875년 9월에 프랑스와 미국의 선례를 참조한 일본이 드디어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일본함대가 조선군의 발포를 유도해 일으킨 ‘운요호 사건’ 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 역시 강화도 초지진에서 시작됐고 초지진은 일본 함대의 포격에 또다시 초토화되었다. 9월 22일 운양호는 영종진에도 포격을 가한 뒤 성을 점령하고 무기와 군수품을 약탈했다. 다시 강화도를 포격한 후 민간을 약탈하고 살육했다. 이때 조선인 3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포로가 됐다고 한다. 이후 우리에게는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홍이포

우리나라에는 1630년 인조 때 진주사로 명나라에 갔던 정두원이 귀국할 때 처음으로 홍이포와 홍이포 제본을 가져온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100여년이 지나서 영조 때에서야 겨우 제작할 수 있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이 홍이포를 사용해 강화도를 함락시키고 남한산성 성채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후 네덜란드인으로



▲ 초지진 ‘홍이포’

제주도에 표류한 벨테브레(박연), 히아베르츠, 피아테르츠 등이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홍이포 제작 및 조종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이후 조선 후기 내내 제작되고 운용되었다. 포신 길이가 215cm, 무게는 1.8 톤, 구경은 100mm이며 유효 사거리는 700m정도이다. 영조때 훈련도감에서 홍이포 2문이 제작되었는데 탄환의 도달거리가 10여리에 달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좋을거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 조선 후기에 널리 알려져 불랑기와 함께 조선군의 주력 대포로 활약한다. 조선 후기에 해외의 침략 때도 이 대포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등사

18 고헌진

전등사의 유래

전등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정족산성(鼎足山城) 내에 위치해 있는 강화에서 가장 큰 절이다. 전등사의 창건설은 멀리 고구려 시대로 올라간다. 고구려 소수림 왕 2년(372), 아도화상이 신라의 일선군(지금의 경북 선산)에 불교를 전파하기 전, 이곳 강화 전등사의 개산조가 되었다는 유서 깊은 설이 있다. 당시의 절 이름은 진종사라고 전해진다. 지금 전등사에 고려 중기 이전의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당시 이곳은 백제 땅, 아도화상은 태백산 줄기를 타지 않고 평양에서 이곳 백제로 곧장 내려와 신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 전등사

전등사의 중요 유물들

중요 유물로는 보물 제393호인 전등사 철 종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5호인 전등사 법화 경판이 있다. 철 종은 우리나라 종과는 그 형태가 판이한 중국 종으로, 민족항일기 말기의 군수물자 수집공출 때 빼앗겼으나, 1945년 광복과 함께 부평에서 발견되어 다시 이 절로 돌아오게 되었다. 또한, 법화경판은 귀중한 장경판으로서 본래 105매였으나, 1매는 6·25전쟁 때 파주의 모 부대에서 가져갔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이 절에는 거대한 청동수조(靑銅水槽)와 옥등이 있다. 청동수조의 유래는 잘 알 수 없으나 산화된 상태로 보아 고려시대의 유물로 보이며, 옥등은 대웅전 안에서 불을 켜던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9호로 지정된 대조루에는 선원보각(璿源譜閣)·장사각(藏史閣)·취향당 등의 편액이 남아 있고, 사찰 경내에는 70여 년 이래로 은행이 한 톨도 열리지 않았다고 전하는 수령 600년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삼랑성

18 김성빈

1. 유래와 역사

삼랑성은 강화도 남쪽 해발 222m의 정족산(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위치한 산성이다. 삼랑성은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한다. 삼랑성이 누구에 의해 언제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통하여 삼국시대 백제에 의하여 지어졌다는 연구가 최근 나왔다. 성 내부에는 전등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고려사』에는 1259년 당시 왕고종이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에 천도하였을 때 왕족과 신하들이 머물 가궐(假闕)을 지었다고 나와 있으며, 지을 때 풍수지리설에 따라 삼랑성과 신니동에 가궐을 짓는다면 적이 물러갈 것이라는 5)중랑장 백승현의 의견을 수용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이 가궐은 예전에 무너져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조선 현종 때 실록을 보관하던 마니산사고가 삼랑성으로 옮겨져 ‘정족산사고’라고 불렸고, 이때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선원보각도 함께 세워졌다. 삼랑성은 동서남북으로 네 개의 문이 있는데, 영조 때 6)문루가 없던 남문에 종해루를 건립하였다. 삼랑성은 또한 고종 3년에 발발한 병인양요에서 양헌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크게 무찌른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양헌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실록과 왕실의 족보를 프랑스의 약탈로부터 잘 지켜내었고, 프랑스군에 승리한 기념비로서 삼랑성 내부에는 양헌수승전비가 서 있다.



▲삼랑성의 위치와 내부구조

5) 勝賢以數馬，馱道籙・佛書・陰陽・圖識，左抽右取，詭辨無窮，景瑜等不能折其談鋒．兩府曰，“如之何？”景瑜等不得已曰，“勝賢之言雖不可信，姑試之．”於是，命營假闕于三郎城及神泥洞．

6) 궁문, 성문 따위의 바깥문 위에 지은 다락집

2. 구조와 건축양식

삼랑성은 성곽의 축성 구조를 보면 주변의 잡석으로 축조되어 삼국시대의 석성구조(石城構造)를 보여주고,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여러 번 보수 및 중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삼랑성의 총 길이는 2,300m이며, 성벽의 높이는 8~9m이다. 강화도에 있는 성들은 대부분 토성인데, 삼랑성은 이들과 달리 벽 부분을 돌로 쌓은 토석혼축(土石混築) 방식으로 지어졌다. 또한, 이 성은 산의 지형을



▲삼랑성 동문

따라, 능선과 계곡을 아우른 7)포곡식으로 축조되었다. 삼랑성은 전등사를 중심으로 네 개의 문이 사방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소실되지 않고 보존된 문은 동문과 남문이다. 특히 동문은 막돌로 문기둥을 쌓고 그 위에 벽돌로 아치를 올린 모습이며, 서문도 같은 양식으로 되어있다.



▲삼랑성 남문과 종해루

7) 산기슭에서부터 시작하여 능선을 따라 정상 가까이까지 축조한 것으로 계곡을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성내의 가용면적을 넓히고 성내에 수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평상시 거주하거나 지구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족산 사고

18 이주영



▲정족산 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의 정족 산성 안 전등사 서쪽에 위치한 사고이다. 정족산 사고는 마니산사고가 1653년(효종 4) 11월 실록각의 실화사건으로 많은 사적들을 불태우게 되자 새로이 정족 산성 안에 사고 건물을 짓고, 1660년(현종 1) 12월에 남은 역대 실록들과 서책들을 옮겨 보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사고(史庫)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실록과 같은 역사에 관한 기록이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정부의 서고이다. 서울에 있는 것을 내사고, 지방에 있는 것을 외사고로 구분하였다.

1) 역사

조선시대에는 조선 왕조 실록을 사고에 보관했는데 조선에는 춘추관, 충주사고, 성주사고, 전주사고가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전부 소실되고 유일하게 전주 사고본만 유일하게 보존되어 인조시기에 정족산 사고로 옮겨 보관하였다. 마니산 사고가 병자호란의 피해와 효종 4년(1653) 11월 사각 실화사건으로 많은 서적과 궤를 불태우게 되어 현종 원년(1660) 12월 3일에 정족산사고로 이안됨으로서 정족산 사고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정족산에는 정족산성이 있어 외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전등사가 있어 숙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정족산 사고는 전등사를 보호 사찰로 하여 설치되었다.

고종 3년(1866)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로즈제독과 그 부하들에 의해 정족산 사고의 서적들이 약탈되었는데 그 일부가 프랑스의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고에 보관되던 실록과 서적들은 화재로 소실되고 외침으로 인해 분실되거나 약탈되는 등 시련을 겪으면서 춘추관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대한제국 이후 의정부에서 관원이 파견되어 강화군수와 협력해 관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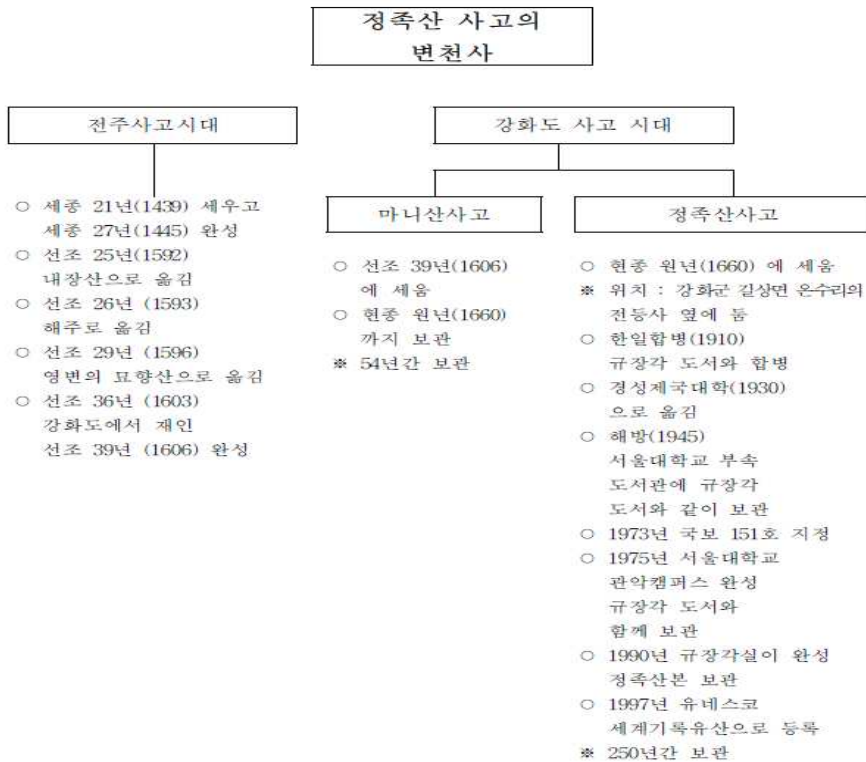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이후에는 정족산 사고본은 태백산사고의 실록 및 규장각의 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 학무국 분실에 이장되었다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졌다. 1946년 서울대학교로 개편되면서 서울대학교 부속 도서관에서 보관되다가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옮기면서 정족산 사고본은 규장각 도서와 함께 보관되었다. 현재는 1989년 관악캠퍼스 내의 규장각 건물이 완성된 이후 계속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



▲1900년대 정족산 사고

정족산 사고지는 정족산성 내의 전등사 서쪽 해발 150m에 위치해 승려들이 승병의 역할을 겸함으로써 사고를 보호해 정족산 사고는 1910년 조선 총독부 학무국 분실로 이장될 때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 사고가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1931년 2월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 제11집에 사고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이때를 전후하여 없어진 것으로 추측한다. 현재 전등사 창고에는

정족산 사고에 걸렸던 「장사각」이라 쓰인 현판과 「취향당」, 「선원보각」 등의 현판이 방치되어 있다.



▲정족산 사고 변천사 (강화 정족산 사고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궁지

18 이현석

1. 유래와 설명



▲고려궁지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피하여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해인 1232년(고종 19) 6월에 창건되었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최우는 이령군을 동원하여 이 궁궐을 지었다고 하였다. 강화도에 국왕과 왕족, 관료와 백성들이 옮겨왔기 때문에 궁궐이 필연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때 왕궁과 도성 시설을 모두 갖추지는 않고, 1234년 1월

부터 송도의 것과 비슷하게 도성과 궁궐, 각 관청을 건립하였다.

2. 역사적 변천

1232년(고려 고종 19) 6월 강화에 궁궐을 창건하였다고 전하는데, 현재 강화 고려궁지라고 부르는 곳이 정궁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된다. 그러나 1270년(고려 원종 11) 고려가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강화의 궁궐은 정궁의 지위를 잃었다. 조선 시대에 이 자리에 건물과 외규장각 등이 건립되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 1631년(조선 인조 9)에 고려궁지에 행궁을 건립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이



▲고려궁지

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강화유수부 동헌, 외규장각, 장녕전, 만녕전 등을 세웠으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하여 거의 소실되었다.

3. 구조와 양식

강화도에는 정궁 이외에도 행궁, 이궁, 가궐 등 많은 궁궐이 있었는데, 강화읍 관청리 부근은 정궁이 있었던 터로 추정된다.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궁궐을 송도의 궁궐과 비슷하게 만들고 궁궐의 뒷산 이름도 송악이라 하였다. 궁의 정문 이름은 승평문이었고, 양측에 삼층루의 문이 두 개가 있었으며 동쪽에 광화문이 있었다. 강화 고려 궁은 1270년(고려 원종 11)에 고려가 개경으로 환도할 때 모두 허물어졌다. 현재 조선 시대의 관아 건물인 명위헌, 이방청 등과 복원된 외규장각이 남아 있다.

4. 주의 깊게 봐야하는 것.

강화도 고려궁지에는 몽골의 침입과 병인양요를 겪으면서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었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 지어진 강화유수부 동헌과 외규장각은 꼭 자세히 살펴봐야 고려궁지를 다녀왔다고 할 수 있다.

성공회 강화성당

18 정수진

1. 성공회 개관

성공회는 1534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해나간 영국 국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따르는 교회를 총칭하는 말이다. 성공회는 헨리 8세와 캐서린 왕비의 결혼무효소송으로 시작되어 생겨난 기독교의 한 종파이다. 로마 가톨릭과 비슷하지만 여성도 사제가 될 수 있고 사제의 혼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2. 성공회 강화성당



▲ 성공회 강화성당

성공회 강화성당은 광무 4년(1900년)에 대한성공회의 초대주교인 코프가 세운 최초의 성당이다. 건양1년(1896년)에 강화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강화에 성당을 세웠다. 강화성당은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나 성당 건축과는 달리 외부는 불교사찰과 비슷하며 내부는 서유럽의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었다. 1896년 영국의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토착신앙이 강한 우리 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부감 없이 새로 전래되는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민중 사이에 뿌리내리고자 했던 의도가 건축형태에서도 나타난다.

성당의 건축 재료로 사용된 목재는 백두산에서 가져온 나무이며 유일하게 영국 제를 쓴 것은 참나무로 된 아치형의 성당 출입문이다. 문에 박힌 장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된 서양식 자물쇠 장식이다. 뿐만 아니라 성공회 강화성당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단면의 성당 건물로 가장 오래된 한옥교회 건물이며 사적 제424호로 지정돼있다.

3. 강화성당 본당의 한문 문장 다섯 가지

성공회 강화성당 정문으로 들어가서 성당을 향하여 쳐다보면 성당의 본당 앞면 다섯 기둥에 각각 다섯 개의 한문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福音宣播啓衆民永生之方 (복음선파계중민영생지방)

- 복음을 펴고 민중에게 영생의 길을 깨우치라.

神化周流罔庶物同胞之樂 (신화주류유서물동포지낙)

- 하느님은 (물이) 동산을 둘러 흐르게 하시고 만물을 살찌우시니 동포의 기쁨이라.

三位一體天主萬有之眞原 (삼위일체천주만유지진원)

- 삼위일체 천주님 세상의 참 근원이시라.

宣仁宣義聿昭拯濟大權衡 (선인선의율소증제대권형)

- 인을 베풀라. 의를 베풀라.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 구제하는 일이 큰 정의라.

無始無終先作形聲眞主宰 (무시무종선작형성진주재)

-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짓기 전에 소리를 드러내시니 참 주재시어라.

병인양요(丙寅洋擾)

18

정재현

병인양요(丙寅洋擾)는 병인년에 서양 또는 양이(洋夷: 서양 오랑캐)가 일으킨 소요(騷擾)라는 뜻이다. 조선 고종 때인 1866년 초에 흥선 대원군은 천주교를 금지하며 프랑스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처형했다. 이를 병인박해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프랑스 선교사 리델이 중국으로 도망쳐 이 소식을 프랑스군에게 알렸다. 이에 프랑스군 함대 사령관인 로즈가 7척의 함선과 1,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와 강화도를 침략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한 뒤, 프랑스인 선교사를 죽인 책임자를 엄벌하고 통상 조약을 체결하라며 조선 정부를 위협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부대를 편성하여 프랑스군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당시 프랑스군은 화력이 좋은 신식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조선군보다 전력이 훨씬 강했다. 조선군을 이끌게 된 양현수 장군은 몰래 강화도로 건너가 삼랑성(정족산성)에 진을 치고 공격해 오는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한 프랑스군은 더 이상 강화도를 점거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철수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에서 물러나면서 당시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던 책 340권과 은 19상자 등을 훔쳐갔다. 그리고 나머지 서적들은 불에 버렸다. 프랑스군이 가지고 간 외규장각 도서는 주로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의례》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병인양요 때 가져간 도서들을 반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를 임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 4차례에 걸쳐 296권의 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병인양요를 계기로 조선 정부는 나라의 문을 닫아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천주교 금지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서양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진 것이다. 게다가 5년 뒤에는 미국까지 군함을 이끌고 와 신미양요를 일으키자 조선은 더욱 강력하게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 정족 산성 전투



▲ 양헌수 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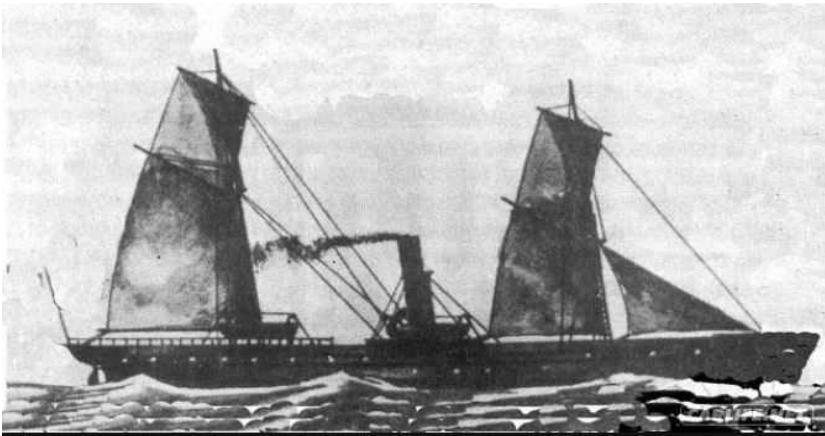
▲ 병인양요 당시 분실 되었던 《의궤》

신미양요

18 정운아

1. 전투의 원인

신미양요는 1871년(고종 8년)에 미국 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와 일어난 전쟁이다.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은 1866년 8월 평양 대동강에서의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들 수 있다. 셔먼호 배는 미국인 프레스턴의 배였다. 프레스턴은 텐진에 기항 중, 메도즈 상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셔먼호는 영국 상사에 위탁되어 있었다. 메도즈 상사는 셔먼호에 조선과 교역할 상품과 함께, 영국인 개신교 선교사 토머스를 통역사로 채용한 뒤 8월 9일 조선으로 향했다. 셔먼호 승조원 중의 주역은 통역사인 토머스였다. 토머스는 이미 조선 포교의 꿈을 가지고 조선해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셔먼호의 승조원들은 프랑스 신부를 학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위협하며 조선에게 통상과 교역을 강요했다. 조선 관리는 통상과 교역은 조선의 국법에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선의 내강 항행은 국법에 어긋난 영토 침략, 주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동강 항행을 만류하였다. 셔먼호는 장맛비로 인해 불어난 강물을 타고 평양까지 올라왔으나 비가 그쳐 수량이 줄어들어 운항이 어려워졌다. 셔먼호 승조원들은 초조함에 중군 이현익을 납치하는 등 난폭한 행위를 자행하며 평양 군민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선 군민이 셔먼호의 대포에 맞아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평양감사 박규수는 화공으로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을 몰살시켰다.



▲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발생 이후 미국은 1867년 1월 슈펠트의 탐문 항행과 1868년 4월 페비거의 탐문 항행을 통하여 서면호가 조선으로부터 양이를 동반한 중국 해적선으로 오인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승조원의 난폭한 행위로 인해 화를 당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슈펠트의 온건한 포함책략보다는 페비거의 강경한 포함책략에 따라 마침내 1871년 대한포함외교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응징적인 조선 원정을 단행한다.

2. 전투의 경과

조선원정을 명령받은 아시아함대 사령관 J.로저스는 군함 5척, 함재대포 85문, 해군과 육전대원 총 1,230명을 이끌고 5월 16일 일본의 나가사키 항구를 출발하였다. 미군은 조선에 탐측 승낙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두 척의 군함을 파견시킨다. 흥선대원군은 밖으로 강력한 통상수교거부정책을 실시하였기에 미군의 불법 영해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광성진으로 접근해오자 조선군은 경고용 포격을 가하였다. 이에 미군은 잠시 물러났으나, 조선군의 경고용 사격을 빌미로 삼아 오히려 조선정부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에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미군은 6월 10일 군함 2척을 앞세우고 육상 전투대원 644명을 강화도의 초지진에 상륙시켜 무력으로 점령한 뒤, 이어서 덕진진과 광성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광성진 전투는 백병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치열하여 아군은 중군(中軍)어재연 등 53명이 전사하였다. 미군 측도 매키(McKee) 해군중위 이하 3명이 전사하고 10여명이 부상을 당한다. 6월 11일 일어났던 광성진 전투에서 미군 역시 피해가 많아, 이튿날 물치도로 철수한다. 미군은 물치도에서 조선정부를 상대로 위협적인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 조선을 개항시키려 했으나,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통상수교거부정책과 조선 민중의 저항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전투의 결과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아무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척양척화(斥洋斥和)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어 서울의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통상수교거부정책을 더욱 강화시킨다. 강력

한 군사력을 가진 프랑스와 미국의 두 차례에 걸친 무력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점은 조선이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조선 민중의 반침략 의지 때문이었다.



▲ 척화비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5721&cid=46617&categoryId=46617>

이효진, 「강화도, 우리 역사를 탐험하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6

강화군청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

신정일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4 : 서울·경기도』, 2012

1. 최응천, 한국 미의 재발견-금속공예, 200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31766&cid=42679&categoryId=42679>

2. 강화도 역사박물관 사이트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_history/introduct/greeting.jsp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강화지식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3901>

네이버 지식백과 ‘강화 갑곶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6751&cid=40942&categoryId=3537>

이재선, [강화도 갑곶돈대, 외규장각], 사학,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17, 15p

인천투어

<http://m-itour.incheon.go.kr/mobile/seedo/spot.detail.do?cid=49144>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29449&cid=42856&categoryId=42856>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574&cid=40942&categoryId=3353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48128&cid=40942&categoryId=3368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51538&cid=40942&categoryId=3544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48127&cid=40942&categoryId=3369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48111&cid=40942&categoryId=33537>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48129&cid=40942&categoryId=3544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3376&cid=46656&categoryId=46656>

은정태. (2005). 박정희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15), 241-277.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7916&cid=42865&categoryId=4286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930&cid=40942&categoryId=31746>

전등사 [傳燈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전등사&ridx=0&tot=33>

전등사 (답사여행의 길잡이 7 - 경기남부와 남한강, 초판 1996. 15쇄 2012. 돌베개)

네이버 지식백과 '삼랑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11308&cid=42856&categoryId=4285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高麗史 卷一百二十三 列傳 卷第三十六 嬖幸

<http://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itemIds=&codeIds=&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9%AB%98%E9%BA%97%E5%8F%B2+%E5%8D%B7%E4%B8%80%E7%99%BE%E4%BA%8C%E5%8D%81%E4%B8%89+%E5%88%97%E5%82%B3+%E5%8D%B7%E7%AC%AC%E4%B8%89%E5%8D%81%E5%85%AD+%E5%AC%96%E5%B9%B8+%&searchKeywordConjunction=AND>

윤용혁, 『강화 삼랑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강화](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강화&ridx=0&tot=736) 삼랑성
&ridx=0&tot=736

김기태, 강화 정족산 사고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200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7712&cid=46622&categoryId=46622>

[네이버 지식백과] 강화 고려궁지 [Goryeo Palace Site, Ganghwa, 江華 高麗宮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5717&cid=46656&categoryId=46656>

[네이버 지식백과] 성공회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467&cid=40942&categoryId=31597>

[네이버 지식백과] 성공회강화성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5433&cid=46646&categoryId=46646>

김수자. (1999). 섬 전체가 역사박물관인 강화도. 새가정, , 6-10.

문화재청 - 성공회강화성당

http://search.cha.go.kr/srch_org/search/search_top.jsp?searchCnd=&searchWord=&home=total&mn=&gubun=search&query=%EC%84%B1%EA%B3%B5%ED%9A%8C%EA%B0%95%ED%99%94%EC%84%B1%EB%8B%B9

이환진. (2010). [신학기고] 성공회 강화성당 본당 다섯 기둥에 써있는 한문 문장. 기독교사상, , 224-235.

김한중 ,한국사 사전 2 - 역사 사건·문화와 사상, 2015. 2. 10., 책과함께어린이

[네이버 지식백과] 병인양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0108&cid=47306&categoryId=47306>

한국근현대사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9480&cid=42958&categoryId=42958>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8875&cid=40942&categoryId=3177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8057&cid=46623&categoryId=46623>

만든 사람들

편집자

17 박지은
17 권오현
18 안슬비
18 오예진
18 이정민
18 박연주
18 권진수

제작자

역사기행반 17학번

亞洲大學校 史學科

歷 史 紀 行 班

2017. 6.